



전통적인 건축 형태에서 이탈을 시도하는 건축가

# Frank Owen Gehry

최근 국내 CF에 여러 차례 등장하면서 더욱 익숙해진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마치 살아 있는 유기체 같은 이 역동적인 건축물은 캐나다 출신의 건축가 프랑크 오웬 게리의 작품이다. 해체주의 건축가이자 하나의 예술 조각 작품처럼 정밀한 설계로 주목받는 그를 만나본다. 번역 우영선 에디터 김수진 자료 제공 마로니에북스(www.maroniebooks.com)

프랑크 오웬 게리는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건축가다. 도면을 그리고 설계 개요를 잡으며 여타 설계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혹은 직관과 개념을 구체적인 접근과 실행 단계로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 등 모든 것들을 컴퓨터와 함께한다. “내 스케치들은 일종의 몸짓이다. 나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할 수 있었으며 컴퓨터 없이 작업했다면 아예 이러한 스케치들을 시도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건물이 지어지기 전, 3차원 디지털 모델로 미리 시각화할 수 있게 되면서 건축분

야가 얼마만큼 변모해왔는지 엿볼 수 있는 그의 말이다.

그는 독일의 비트라(Vitra) 미술관을 완공하면서 1987년부터 내세운 해체주의 개념을 더 공고하게 만들었고, 건축물을 통해 정교하게 형상화시키면서 당시 동시대 건축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스페인 빌바오(Bilbao)의 구겐하임 미술관(1991~1997)이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게리는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스펙터클한 시각적 효과를 내는



2



1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지어진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지붕 디테일과 건물 외관. 2 비트라 미술관의 외부 구조 디테일. 3 베니스 해변 주택, 1967년. 4 캘리포니아 베니스 해변에 위치한 치엣 데이 모조 사무소. 5 구겐하임 습작 스케치.



3



4

건물로 설계하고자 했고, 그 결과 변칙이는 티타늄 필름으로 조각된 예술 조각 작품과 같은 지금의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입체파와 미래파의 요소를 참조함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혼합되어 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프랑스 소설가 쥘 베른(Jules Verne)의 상상력에서나 나올 법한 공상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주선이나 변화무쌍하게 살아 움직이는 형태처럼 느껴지는 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네르비온(Nervion) 강가에 비춰진 모습이 더욱 아름다운데, 이는 마치 자신의 이미지를 감탄해하는 나르시스처럼 보인다.

또한 정역학을 무시한 채 25만 제곱피트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구조 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엄청난 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건축 비용을 최소화하고 구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연 도금된 강철의 모든 가능성을 실험한 건물이기도 하다. 지붕 표면은 아주 가는 티타늄으로 마감되어 있다.

## 삶과 작품

프랑크 오웬 게리는 1929년에 토론토에서 태어나, LA 사우스 캘리포니아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공부했다. 1953년부터 1962년 자신의 사

무실을 열기 전까지 여러 스튜디오에서 일했으나, 작품 활동 초기에는 그다지 비중 있는 설계를 맡지 못했다. 당시 상점과 단독주택을 주로 설계했던 그는 해체주의 건축 경향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해체주의 건축을 향한 여정은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전통적인 네덜란드풍인 자신의 집을 재건축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그는 이 집을 해체주의 건축 원리가 표현된 건물로 변모시켰다. 조각가 클레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의 스케치에 따라 캘리포니아 베니스 해변에 세운 치엣 데이 모조(Chiat-Day-Mojo) 사무소는 팝 아트의 언어를 완전히 포용하면서도 해체주의 건축에 기념비적 차원을 더한 건축물이다. 그의 해체주의 경향은 프라하에 세워진 내셔널 네덜란드(Nationale-Nederlanden)사에서도 등장한다. 한쪽이 부분적으로 붕괴된 것처럼 보이며 서로 기대고 있는 두 개의 탑은 현대의 도시 생활을 토속적 색채로 묘사하고 있다. 좀더 최근의 설계 프로젝트들 중에는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신관과 2003년에 문을 연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등이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 신관에서 고층 빌딩의 경직된 형태는 계리에 의해 파편화되고, 물의 움직임과 도시의 에너지를 연상시키는 유선형 몸체로 거듭났다. ☺